

전북도, 설 명절 대비 식품 점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전북도가 설 명절을 대비해 도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는 수산물 판매량이 급증하는 설 명절을 대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지원장 최광규), 시·군, 명예감시원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5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은 수입량 및 위반빈도 등을 토대로 활참돔, 활방장어, 냉장명태, 참조개, 활우렁이, 활방어, 활가리비, 활미꾸라지, 주꾸미, 대게를 10대 중점품목으로 선정했다.

합동단속반은 수산물 제조·유통·

판매업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음식점, 배달업 가맹점 및 통신판매 업체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중 미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한 자와 혼란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합동단속반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정확과 거짓표시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뿐만 아니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지도를 병행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특별단속으로 도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명절 맞이 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전북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산지 허위표시 지도·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제1차 한-아세안 디지털장관회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1차 한-아세안 디지털장관회의'에 참여해 아세안 10개국과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분야 협력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부정 축산물 위생·축산물이력제 점검

전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이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에 나선다.

도는 25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2주간, 도·시·군·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1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16개반)을 운영해 '설 명절 대비 부정 축산물 위생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도내

310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행위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적정처리 여부 ▲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 ▲표시방법 준수 여부 ▲소고기 유통이력제 이행사항 등이다.

현재 합동 점검반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물론, 최근 3년간 미점검업체 및 행정처분 이력업체 등으로 점검 대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도하고, 그 외 위반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박태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부정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이나 부정 축산물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

전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5일간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는 전북도와 광주식약청,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5개반 20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

해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가공 및 조리·판매업체 등 총 102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

다.

특히,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제사음식, 조기, 명태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 안전성을 확인한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업체 및 수거 검사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조업구역 위반 타도 선적 어선 1척 적발

전북도가 군산 연도 서방 2.6km 해상에서 조업구역을 위반해 무허가로 패류를 불법 채취한 타도 선적 어선 A호를 지난 21일 오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어선의 피의자를 신문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도내에서 타도 근해형망 어선들이 조업구역을 위반해 군산 연도 주변 해역에서 키조개 불법 채취 등의 행위가 종종 목격된다는 지역 어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도는 민원뿐만 아니라, 우범해

역의 불법조업 집중 지도·단속을 위해 전북도 어업지도선(전북207호)을 배치하며, 불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어업 정지 처분이나, 최고 어업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면세 유통, 공급 중지, 어업 지원 자금이 회수된다. /유호상 기자

도내 농업인만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올해도 양파 등 5개 품목 610농가 19억6900만원 혜택

다른 지역에는 없고, 도내 농업인만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다.

산림농정의 대표사업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그것이다.

생산에 들어간 비용과 유통 비용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준다.

올해(지난해 가격 기준)에도 양파 등 5개 품목 610농가가 20억여원의 차액을 지원받는다. 변동성이 심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는 이유다.

전북도는 2020년 품목별 기준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시장가격이 하락한 양파, 마늘,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등 5개 품목에 대해 차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610농가가 19억6,90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농진청 발표)와 유통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표)가 최종 발표됐다.

이에, 도는 지난 1월 4일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별 기준가격과 지원품목 및 단가를 확정했다.

기준가격 이하로 시장가격이 하락해 지원이 결정된 품목은 5개다.

▲양파 206농가 12억7,700만원 ▲마늘 95농가 4억2,900만원 ▲노지감자 130농가 8,800만원 ▲가을배추 49농가 2,700만원 ▲가을무 40농가 1억4,8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이 결정된 차액분은 설 명절전까지 지급해 농업인의 영농준비 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말 도내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포함한 역대 가장 많은 농업 직불금 보조금 약 4,880억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단순 소득 보전과는 다른 유형의 사업이다.

농산물 출하기에 가격하락으로, 경영 기반이 취약한 중소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메꿔주는 최소한의 방어선 역할을 하는 전북도만의 사업이다.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대상품목의 주 출하 기간 동안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이런 지원은 농산물의 가격하락으로,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메꿔주는 최소한의 방어선 역할을 하는 전북도만의 사업이다. /유호상 기자

미세먼지 노출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 민감성 증가

안전성평가연구소, 노출 위험성 확인 연구 결과

안전성평가연구소(KIT)는 급성폐렴동물모델에서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폐 섬유증 유발을 확인했다. 이로써, 미세먼지 노출이 세균성 호흡기 감염 질환을 악화시키는 민감성 증가 가능성을 제기하고, 관련 기전을 밝혀냈다.

미세먼지 입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급성 폐 손상과 호흡기 감염 간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호흡기질환계통 유호성평가연구원(NCER) 연구팀은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호흡기 감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용 쥐에 기도 내 투여법으로 미세먼지(100ug/mouse)를 3번 노출시킨 뒤 세균성 호흡기 감염(20ug/mouse) 1회를 유도했다.

정상 폐 조직과, 미세먼지 노출 폐 조직, 급성 폐 손상 조직, 미세먼지 노출 후 급성 폐 손상 조직 등의 염증 반응 및 폐 조직의 손상 변화를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관지 폐포 세척액(BAL) fluids에서 면역반응 매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염증성 사이토카인 IL-1β(A), IL-6(B), TNF-α(C)의 단

백질 수준이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세균성 호흡기 감염군(DEP+LPS)에서 폐 내 염증 반응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균성 호흡기 감염모델에 미세먼지를 노출시킨 실험군(DEP+LPS)에서 IL-17 사이토카인을 매개로 TGF-β1과 Collagen I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폐 섬유화증의 유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 미세먼지에 지속 노출 됐을 때, 폐 섬유화증과 같은 호흡기 중증까지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 원광대 군산대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담**

스피치·긴장해소·리더쉽·웃음코칭

스피치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원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도서관 및 평생교육원 책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
- 한국스피치·음성학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사
-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새롭고 멋진 스피치 노바' 중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 (주, 야간)	익산, 논산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	군산, 서원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아)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